

高麗 青銅香爐 二例

金 和 英

이미 三國時代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던 금속공예는 統一新羅에 이르러 더욱 숙련된 創意와 솜씨를 엿볼 수 있고 장식 수법에 있어서도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도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에까지 뛰어난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속공예의 작품은 그대로 高麗時代에 계승되었으며 특히 佛具類의 造成이 현저하여졌던 것이다. 그 중 香垸은 이러한 금속공예의 소산으로 비록 규모는 작으나 佛前에安置되어 예배 양식을 위한 필수품의 供養具였다. 이러한 香垸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특색 있는 양식을 이루었고 특히 香垸 자체에 銀入絲가 施工됨으로써 더욱 그 장엄을 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香垸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국외로 반출되거나 혹은 없어져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예도 그리 많지 못하다. 그리고 이들 香垸의 형태가 모두 圓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으며 爐身과 臺로 구성되었는데 爐身은 圓筒形으로 넓고 평평한 口緣部가 수직으로 外反되었으며 外緣 上面에 圓隆線이 周廻하고 있다. 臺具는 爐身 아래로 圓筒의 柄柱形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확대시켜 퍼진 圓盤形이 通例이다. 그러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한 韓國美術二千年展에 出品된 遺物 중 高麗時代香爐로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作品이 展示되었으므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一、奉業寺 青銅香垸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香爐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密陽 表忠寺 所藏의 大定十七年(一一七七 A·D)銘 香垸인데 이것은 高麗時代 香垸의 一般形으로 아래가 넓어진 圓筒形 柄柱形의 臺部와 口緣이 넓게 수

직으로 外反된 爐身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青銅香垸의 모두가 역시 爐身과 臺로 구성되었고 뚜껑을 덮도록 된 예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金潤氏 소장의 香垸은 台·身·蓋가 모두 具存된 특수한 형태로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香垸이 學界에 소개되지 않았다.(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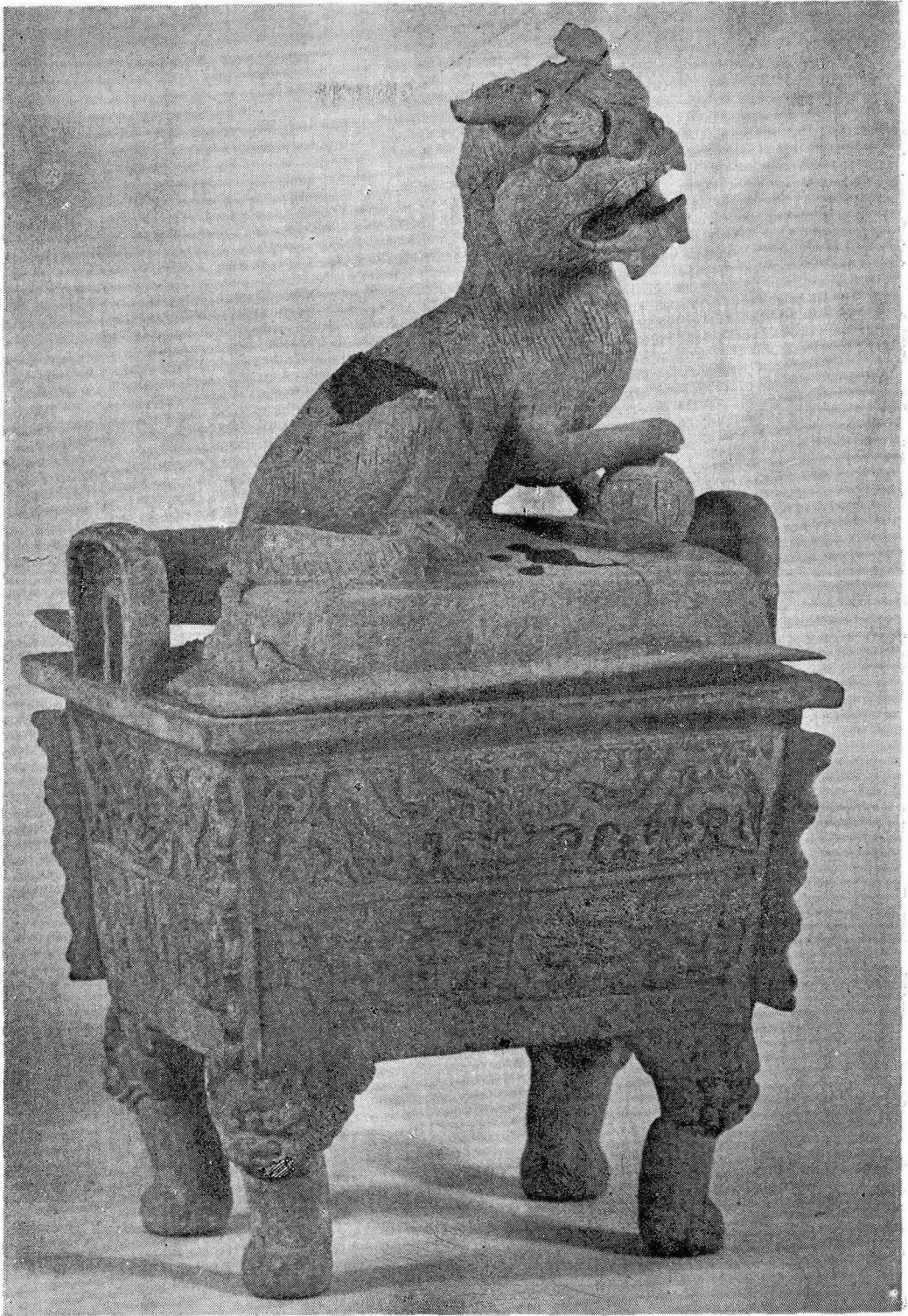
이 香垸은 一九六七年 京畿道 安城郡 二竹面에 있던 奉業寺址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出土된 것으로 그 一括遺物 중에서는 물론 高麗時代 香垸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이 香垸은 爐身 아래 身部를 받치는 臺部가 있고 爐身 위로 뚜껑을 덮도록 한 형태이다. 結構方法은 台身·蓋가 각기 別個로 鑄造되었는데 臺部는 三足과 下部가 퍼진 柄柱形이 각각 따로 구조하여 釘으로 固定시켰으며 뚜껑도 蓋 자체와 相輪이 역시 따로 구조되어 釘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각 부의 구조를 살펴 보면 臺部는 狗足形의 三足 위에 圓盤形의 下台가 있는데 下台의 세 곳에는 下台와 다리를 고정시킨 釘이 보인다. 그러므로 三足과 下台는 흔히 볼 수 있는 青銅火爐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圓盤形의 측면에는 帳幕形의 장식을 들었었으나 현재 대부분 파손되고 흔 곳에서만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上面 中央에는 두단이 弧形 반침 위에 놓인 圓筒의 柄柱形이 있고 그 위에 弧形 반침 한 단과 매디가 연속되어 새끼를 꼬은 듯한 형태의 반침이 한 단 있어 爐身을 받치고 있다. 爐身은 일반 香垸의 身部와 같은 형태인 圓筒形인데 口緣이 넓적하면서 평평하나 外緣이 비스듬히 위로 향하여서 뚜껑에 맞도록 되어 있으며 身部에는 中央에 半圓隆曲線帶가 보이며 그 위 아래로 각각 한 줄의 細線이 陰刻되었을 뿐 다른 장식은 없다. 이렇게 口緣部 外緣이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며 위로 향한 것은 일반 香垸 口緣部의 外緣이 半圓隆曲線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양식으로 역시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룬 것 같다.

뚜껑은 大鉢形으로 頂面에 相輪이 있다. 口緣은 上·下로 비스듬히 각각 사선을 이루면서 外反되었으며 中央에 세 줄의 細線이 陰刻하여 周廻하였다. 陰刻線 위 세 곳에는 香煙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三山形



奉業寺 青銅香垸 (金潤氏 所藏)



青銅銀入絲獅子蓋香爐(車明浩氏所藏)

과 두개의 圓形의 空氣孔(空氣孔)이 뿔려 있으며 이들 空氣孔 사이 한 곳에 銘文이 陰刻되었다. 뚜껑 頂面에는 銅板으로 만든 四葉重瓣의 蓮華가 장식되어 相輪을 고정시켰는데 蓮華와 뚜껑과는 역시 釘으로 고정시켰으므로 外側 四瓣 中央에 釘이 보인다. 相輪은 蓮華 위로 두단의 弧形 받침이 있고 그 위에 圓筒形의 露盤이 놓였는데 위의 弧形 받침은 爐身 바로 아래 놓인 매디의 연속인 새끼와 같은 형태의 紋樣이 있으며 아래 弧形 받침에도 施紋의 흔적은 보이나 靑錄鏤로 확인 할 수 없다. 露盤 위에는 두단의 弧形 받침이 있고 그 위에 仰蓮이 있는데 仰蓮 위에는 다시 한단의 받침이 있어 圓筒形의 寶輪과 寶蓋를 받고 있다. 寶蓋는 天蓋形인데 아래로 장막이 드리워지고 위로는 귀꽃 모양이 장식되었는데 특히 네 귀퉁이의 귀꽃 중앙에 圓形孔이 있음으로 미루어 현재 모두 없어졌으나 원래 垂飾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寶蓋 위에는 한 단의 받침과 간주가 水烟을 받고 있다. 이 相輪에는 鍍金이 남아 있고 塔婆의 相輪과 와 그 구조 및 형태가 비슷한 점이 주목된다. 銘文은 뚜껑 위에 한 줄로 點刻縱書 되었는데 字徑은 2cm이고 字體는 楷書體이다.

「奉業寺三重大師元迥」이라 한 銘文으로 보아 이 香坑은 奉業寺의 三重大師元迥이 부처님 앞에 바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香坑은 작품 자체가 크나 장식이 별로 없어 뚜껑 위의 相輪은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특히 水烟의 火焰紋 역시線이 간단하면서도 대담하여 더욱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香坑은 규모에서 뿐 아니라 장식적인 면에서도 당당한 품위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이 香坑은 圓盤形의 下台에 장식된 帳幕과 爐身 口緣部 한 곳, 뚜껑 口緣 上部 두 곳이 파손된 외에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며 전면에 靑鏤가 곱게 덮여 있어 香坑의 품위를 더해 주고 있다.

이 香坑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전체적인 장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소박한 점으로 미루어 造成年代는 十一~十二世紀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實測值 全高 八一cm, 口徑 三五cm, 爐身高 一八·二cm

二、靑銅銀入絲獅子蓋香爐

이 香爐는 車明浩氏 소장. 高麗時代 일반 香坑이 圓形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方形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鼎形으로 身蓋가 갖추어진 예이다. 爐身 아래 네 귀퉁이에는 上部에 獅子의 얼굴이 새겨진 狗足形의 발이 있을 뿐이다. 爐身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아진 方短形으로 네 모서리에 波形 윤곽의 銅板 장식이 붙어 있으며 各側面은 中央에는 橫으로 굽은 한 줄의 無紋帶로 上·下二分하여 鬘鬘紋을 양각하고 그 間地에 雷紋을 장식했는데 鬘鬘紋의 윤곽과 雷紋은 모두 銀入絲하였다. 爐身 上面 左·右에는 馬蹄形 손잡이가 하나씩 붙어 있다. 뚜껑은 長方形으로 口緣은 수직으로 外反되었으며 上面에 獅子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銀入絲한 寶珠를 잡고 왼 발을 세우면서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머리를 들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 獅子의 毛髮는 모두 銀入絲로 나타냈는데 頭部와 胴體背面은 안으로 말린듯 꼬부라진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직선으로 나타냈다. 앞을 향하여 놓인 獅子의 꼬리는 胴體에 비해 크고 긴 편이며 역시 銀入絲로 털의 결을 나타냈다. 그리고 두 귀가 위로 향해 있어서 마치 빨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獅子의 좌·우 中央에 각각 6개의 小圓孔이 있어 香煙이 새어나가도록 했는데 오른쪽의 圓孔은 2개만 완전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손되어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

香爐 뚜껑에 獅子나 다른 동물의 형태를 圓刻으로 장식한 것을 靑瓷香爐에서는 몇몇 찾아 볼 수 있으나 靑銅香爐에서는 희귀한 예라 하겠다. 아울러 香爐의 장식 문양인 鬘鬘紋도 靑瓷鼎形 香爐 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개 그 造成年代는 十二世紀부터 十三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 향로 全面에 靑錄이 덮여 있어 銀入絲가 곧 눈에 띄지 않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實測值 높이 二九·八cm 一邊 길이 一七cm · 一五cm

註

이 靑銅香坑의 銘文은 黃壽永 編 金石遺文 第三輯(韓國美術史學會刊)에 「奉業寺靑銅香爐」로 소개되었으나 形態에 대한 정식 소개는 없었다.